

언어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정보

인간 생활의 기본, 언어

“엄마” “아빠”라는 말도 못하던 아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문이 터지고, 커 가면서 점점 더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고 쓰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몇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다른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종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꽤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복잡한 문법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또한 음악을 작곡하거나 악기를 연주하지도 못한다. 동물 가운데 영리하다고 알려진 침팬지에게 인간과 같은 문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더라도, 동물이 인간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음악을 만들어 즐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먹지 않으면, 자지 않으면 죽는다. 또 더위, 추위, 다른 동물들의 공격 등 끊임없이 다가오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리고 언어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차이는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인간은 어떻게, 언제부터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언어는 단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을까?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그리고 이 언어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지적 능력과 감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몸의 구조가 언어를 만들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연구한 자연과학자들 가운데, 해부학적으로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발성 기관, 청각 기관의 형태 자체가 말하고 듣기에 아주 알맞게 발달해 있다고 한다. 발성 기관인 후두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다른 동물들처럼 상당히 위쪽에 있다. 그러다 18개월 이후부터 14세까지 조금씩 조금씩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후두가 목구멍에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리 넓은 범위의 소리를 낼 수 있다. 또한 귀 역시 소리를 듣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어린아이들은 언어를 아주 빠르게 습득한다. 그렇다고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규칙을 가르쳐 주거나 모든 형태의 문장을 들려주지는 않는다. 아주 일반적인 문장을 중심으로 들려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문법 규칙을 익히고 추론하며 이를 적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구사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언어 능력은 후천적으로 습득한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다고 보인다. 이를 생득설이라고 한다.

또한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뇌 크기를 생득설의 근거로 든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뇌가 점차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지능도 크게 발

달하여,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언어가 생겨났다고 보는 입장이다. 진화론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선택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인간의 뇌가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뇌는 아니다. 전체 몸과 뇌 크기의 비율을 따져 봐도 인간이 가장 높지는 않다. 다람쥐의 일종이 가장 높다. 촘스키 등의 주장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이 뇌와 지능의 발달에 따라 우연하게 언어를 얻게 되었다면, 언어 능력은 뇌와 지능의 상태와 상관관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뇌 손상도 없고 다른 지능은 정상인데 유전적 이상이 있어서, 유독 언어 이해나 표현만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뇌 크기 이론은 설명하지 못한다.

언어는 진화의 결과로 생겨났다

한편 미국의 언어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이 자연선택 과정에서 언어 능력을 얻었다고 본다. 진화에서 중요한 메커니즘인 자연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동물의 눈이나 새의 날개 같은 기관들은 모두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을 통해 얻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형태는 분명히 생존하고 적응하는 데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원시 시대의 초기 언어 형태는 어떤 이점이 있어서 자연선택이 되었을까?

공통된 언어가 없는 집단 사이에서 의사전달 수단으로, 특히 서유럽 언어를 바탕으로 어휘 수를 크게 줄이고 문법을 단순화한 언어인 피진(pidgin) 언어라는 것이 있다. 하와이 초기 이주민 사회처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던 공통언어를 뜻한다. 이러한 피진어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해 보면, 초기 원시 시대의 원형 언어인 프로토 언어가 나름대로 적응에 이점을 지녔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초기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이러한 원형 언어를 사용하였고, 약 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 현대 언어를 지니게 되었으리라 본다. 인간의 언어는 이러한 원형 언어에서 시작하여,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문법이 변해 갔다. 이 변화의 과정은 자연선택에 의하여 살아남고, 살아남아 더 정교화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단계를 뛰어 넘었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현재 형태로 진화했으리라 보고 있다.

핑커와 마찬가지로 진화의 과정에서 언어가 생겨났다고 보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다. 손 동작에서 언어가 생겨났다고 보는 '운동 이론'이다. 운동 이론은 영장류의 뇌에서 운동 통제를 담당하던 체계가 진화 과정에서 여러 단계 수정을 거치면서 언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영장류가 손을 쓰는 방식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손을 뻗칠 때는 왼손을, 사물을 조작할 때는 오른손을 쓰는 경향이 있다. 즉, 왼손 기능이 먼저 발달하고 오른손 기능이 이어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왼손이 음식에 닿을 수 있으므로 오른손은 동물 몸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뇌의 좌반구는 오른손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언어 능력의 중추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른손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언어 능력 역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운동 이론에서 조금 더 나아가, 손 동작에서 제스처가, 제스처에서 언어가 발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200만 년 전 직립 인간이 출현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기능을 하던 손은 그러한 기능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손은 의사소통을 하는 제스처와 도구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 더 진화하면서 말이 출현하자 손은 제스처의 기능에서도 해방되었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손 운동을 담당하는 단일 중추가 필요하였고, 이 중추가 뇌의 좌반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뇌의 좌반구는 오른손을 비롯하여 오른쪽 몸을 제어, 관리하는 기능을 발달시켰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고 조합하여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손 기술은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왼손과 오른손 기능 사이에 차이가 심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른손 기능이 복잡해지고 발달하는 것과 언어 능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누군가 새롭게 오른손으로 돌을 깨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자.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 도구 사용법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다. 이처럼 오른손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좌반구의 언어 기능 역시 발달하였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던 뇌의 좌반구가 관리하는 영역이 입과 발성 기관까지 확대되면서, 언어를 담당하는 좌반구의 기능이 특화되었다고 제스처 이론은 설명한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손짓으로 짙막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 역시, 손 동작을 제어하는 뇌 좌반구의 발달과 언어 능력과의 관계를 암시해 준다.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 이론이나 제스처 이론만으로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복잡하고 풍부한, 그리고 꽤 추상적인 인간의 언어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비해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하고 풍부하고 꽤 추상적인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생겨나고 발달해 왔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된다.

문화의 관점에서 언어 능력을 설명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언어 능력은 손동작 같은 ‘운동’ 보다는 상대방의 마음, 생각이 어떠하리라 추측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여 일종의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이론’(TOM, Theory of Mind)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개념으로 확장된 뒤, 결국 언어 능력이 되었다. 이때 손 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손 운동이나 제스처가 바로 언어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 이보다는 먼저,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인지를 공유함으로써 통하여 언어가 발생되었다.

즉,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는 데서 언어는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나 말을 모방하여, 다시 상대방에게 해 보이는 과정에서 의사소통하는 언어 기호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듯 대상에 대한 개념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회적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동물과 달리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는 언어 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언어가 문화의 산물이라면 문화의 수준과 언어의 복잡성 역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세계의 여러 언어권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남은 과제들

인간은 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언어 능력을 갖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놀라운 사례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연구결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손과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온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언어는 충분히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흔적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초기 인류의 언어 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진화 단계의 언어 기능의 하위 요소들에는 뇌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요인과, 반대로 문화적, 사회적 영향에 돌릴 수 있는 요인들이 혼재한다. 그 둘을 몇만 년, 몇십만 년이 지난 지금에서 갈라내는 작업은 꽤 어렵다.

이 밖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많다. 태어날 때부터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인지 또는 신체적 능력들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가? 언어 능력이 운동, 지각, 언어, 그 밖의 다른 인지 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전문화가 되어 발달되었는가? 특히 언어의 문법성은 과연 위에서 얘기한 기능들 가운데 어디서 나오게 되었나?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해보자면, 운동 기능의 생성과 제어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제스처 기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개념적 표상을 만드는 기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순수 언어문법성으로의 진화 통로가 별도로 존재하였는지……그리고 이 이론들 중의 어떤 이론을 어떤 근거에 의하여 선택하고 기대야 할 것인가?

물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며,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초기 인류에 대한 구체적인 화석들, 초기 언어에 대한 증거들을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뇌 손상 환자나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 특성에 대한 꾸준한 자료 축적 역시 필요하다. 언어학적 분석 연구, 인지신경심리 연구, 언어습득 연구가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의 연구와 밀접히 연결되어 진행되어야 할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